

加사령관, HD현대重 잠수함 건조 역량 확인

앵거스 탐시 해군사령관, 울산본사 방문 캐나다, 60兆 규모 잠수함 12척 도입 추진 “국익 도움되도록 방산사업 최선 다할 것”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해군의 최고위 관계자가 HD현대중공업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해군 중장)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이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진행 중이다. 향후 러시아, 중국 등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의 이 잠수함 발주 규모는 60조원 정도로 국내 조선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창정비 중인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을 살펴보고, 잠수함 건조 시설과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보며 HD현대중공업의 우수한 잠수함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해군 중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합정 건조 현장을 방문해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건조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입 사업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양국간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의 협력방안도 활발히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획득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방산사업은 국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및 관련 업계와 해외 방산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앵거스 탐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관련 기술력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적기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해군이 주관하는 ‘딥 블루 포럼(Deep Blue Forum)’에 참가해 C PSP 사업에 대한 전략과 잠수함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너희만 우회하나, 나도 할 테다



기자 수첩

김 서 현
(산업부)

“튀르키예에서 케냐로 이민했는데 괜찮으려나 몰라.” 언뜻 이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유튜브 이민’에 관한 대화다. 유튜브 이민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이용해 저렴한 국가 IP로 결제해 돈을 아끼는 꼼수를 뜻한다. 즉, “나 인도인이 됐어”라는 말은 인도 주소와 IP를 사용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했다는 의미다. 주로 인도, 튀르키예, 케냐 등이 인기국가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난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유튜브 난민은 우회 결제를 시도하다 구글에 적발돼 멤버십이 중단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결제 카드 번호로 색출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경고에도 거듭 한국 국적 신용카드를 이민을 하다가(?) 아예 구글 계정 자체가 잠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 난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전과 없이(?) 유튜브 이민을 하는 방법이 요즘 인기다.

유튜브 이민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유튜브 난민의 근본적 원인은 구글이 국가별 생활·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과 허술한 검증 절차 그리고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나 유난히 유튜브 이민은 별 죄책감 없이 이뤄진다. 도의적으로 잘못 된 일이지만 유튜브 난민들은 이민을 반복한다. 도리어 당당하다. 유튜브 난민 A씨는 “구글도 세금 우회하면서 왜 난 안 되냐?”라고 책상을 광광 치면서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A씨가 불만을 터뜨린 것처럼 실제로 구글은 유튜브 이민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 회피를 자행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내 주요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처리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구글코리아는 155억 원의 법인세만 냈다. 그리고 네이버는 구글코리아 대비 30배 많은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런 세금 우회로 급기야 구글의 이름을 붙인 ‘구글세(Google Tax)’라는 세계 정책이 G20에서 논의 돼 시행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특정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을 아끼려는 마음은 유튜브 난민이나 구글이나 똑같은 셈이다. 도덕적 해이도. /seoh@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10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48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60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어 대니 갈등. 72년생 운명이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84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37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49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정이 필요. 61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73년생 손끝에 뭉뚱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85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38년생 생물이 마르면 고기가 다투어서 흙탕물로 변하니. 50년생 자신을 응원하라. 62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서류를 좀 더 살펴봐. 74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86년생 즐거움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39년생 불편해도 짜증을 내지 말고 견뎌보자. 51년생 미흡하다고 느끼면 소통을 해서. 63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75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할 것임. 87년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사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이.



40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52년생 일단 새로운 일에 도전 해라. 64년생 돌을 얻기 위해 하나는 양보. 7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8년생 변화하는 연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4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53년생 생선 먹을 때 가시를 조심해서. 65년생 투자 유혹이 많은 날이니 계산과 절제가 필요. 77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생활에 득이 된다. 89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옷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42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끝내는데. 54년생 나의 인생이니 공부해야 누리며 산다. 6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78년생 마음이 움직여도 즐겁게 지내도록 노력. 90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43년생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55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67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내일로. 79년생 배우자가 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될 테니 가정을 이루도록. 91년생 여기저기 다녀본들 무슨 소용.



44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다. 56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라. 68년생 부모님의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80년생 실수가 있으니 음주는 주의하자. 92년생 새의 큰날개를 타고 비상하는 것과 같이 발전.



45년생 피곤이 쉬 풀리지 않는 날. 57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이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69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81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음. 93년생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다.



46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58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70년생 기량 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낭비. 82년생 새 숲은 새 부대에 담으려 했던 변화를 추구하라. 94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보도록.



47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 5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듯하나 자중할 때. 71년생 좋은 결과는 시작부터 만사 불어트므로. 83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 95년생 다른 것을 욕심내다가 있는 돈자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



김상회의四季

언제나 시월 상달 기도

선조들은 해마다 시월이면 나라의 나라 차원에서 마을은 동리 차원에서 각 가정은 집집마다 온 나라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상달 기도를 올렸다. 기운이 상서롭고 여여한 때를 때에 맞추어 기운을 모으는 것이다. 어떤 분은 해마다 같은 기도를 매번 올리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즉 기도의 효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 해마다 생일은 왜 챙기냐고. 자연에 수능 하는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일까, 어리석어서 그리했을까? 요즘 사람들은 특이나 에너지를 중히 여긴다.

우리가 늘 말하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무슨 뜻인가? 기분(氣分)은 말 그대로 기의 분포 즉 에너지의 분포이기도 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의 흐름이다. 그 기분이라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항상 같지가 않다. 변덕스럽기도 마음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그 마음을 바르고 순일하게 하고 힘있게 하며 긍정적인 기운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마음을 모아 형식과 행위를 통해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수행이라고도 한다.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잘 갈무리하기 위함이다. 나를 살린다는 것은 마음을 살리는 것과 동의어다. 마음은 또한 몸과 상호작용하므로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진다. 그 마음을 갈무리하는데 지구상 북반구에서 가장 그 기운이 순일할 때가 음력 시월 즈음이다. 하늘은 맑고 청명하여 인간의 뜻과 마음이 하늘과 맞닿기 좋은 때고 땅은 만물을 키워내고 휴지기로 들어가기 직전의 부드러움으로 풍요롭다. 바쁜 농사일도 거의 끝내고 시월 상달 고사를 올리고 그 떡들을 서로 돌리면서 한 해를 무탈하게 지낸 것을 고마워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4
4			1		9	6	
	7			3			
	2		6		4		1
		4				7	
							6
				9			2
		8	7		3		5
2	5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과열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6	1	7	8	2	9	2
9	7	1	8	2	2	8	9	6
2	7	8	9	6	9	1	7	8
2	9	7	2	1	8	6	8	9
8	8	2	2	9	6	7	1	9
6	1	9	7	8	9	8	2	2
1	6	2	9	9	7	9	2	8
8	9	9	6	2	1	2	8	7
7	2	8	8	9	2	9	6	1

2	9	8	8	1	6	7	9	2
1	2	9	2	7	9	6	8	8
8	6	7	8	9	2	2	9	1
9	7	6	1	9	8	2	2	8
8	1	2	6	2	8	9	7	9
9	8	2	9	2	7	1	8	6
7	8	8	2	6	9	9	1	2
6	9	1	9	8	2	8	2	7
2	2	9	7	8	1	8	6	9